“조계종 역사 새로 쓴 소임자로 평가 받겠다”

기호1번 자승스님

• 공통질문

1.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2. 종도들에게 출가자로서 치열하게 살았던 때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준다면.
3.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4. 소임을 볼 때, 가장 우선에 두는 원칙은.
5. 제33대 집행부가 잘했다고 평가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9월29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자승스님을 제4교구본사 월정사에서 만났다. 월정사=김형주 기자

오는 10일 새롭게 선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종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다. 즉 한국불교의 얼굴이자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 손꼽히는 막중한 소임자를 새롭게 모시는 뜻깊은 자리인 셈이다. 이에 본지는 유력 후보인 기호1번 자승스님(현 조계종 총무원장)과

1. 한국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소신과 의지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된 계기이며, 훗날 역사가 ‘조계종의 역사를 새로 쓴 소임자’로 기억하고 평가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지난 4년간 저는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며 시대와 소통하며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많은 결실도 있지만 아쉬움과 부족함도 있었다. 그러나 저 개인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불교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로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실현하겠다.

2. 출가 수행자는 언제나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가야 하겠지만 굳이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때를 들자면 지난해 승풍실추 사건으로 100일간 참회기도를 올린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일어난 승풍실추 사건을 접하면서 종단의 책임자로서 자비와 화합의 승가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오지 못한 것을 깊이 참회하는 계기가 됐다. 사건 직후 참회문을 발표하고 100일 동안 108배 참회기도를 올리면서 종단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위기를 쇄신의 기회로 삼고자 고군분투하여 몇 가지의 쇄신입법을 제정하였던 일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3. 은사 스님께서는 평소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 대지 위의 수풀에도 약초가 있고, 독초가 있지만 약초라 해서 필요하고 독초라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듯 사람도 선인이라 해서 필요하고 악인이라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이는 누구를 만나든 공경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제가 33대 집행부의 슬로건으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또한 은사 스님께서는 불교계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교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수행정진과 함께 장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러한 취지를 받들어 설립한 것이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다. 은사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1997년부터 5년간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불교의 사회참여와 공동선 실현의 필요성에 눈을 떴다.

4.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이다. 원력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계속 가다듬게 하고, 공심은 일의 처리를 바르게 한다. 특히 종무행정을 맡은 사람이 원력과 공심이 없다면 종단은 사리사욕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단의 집행부를 이끌어 가면서 제 자신이나 일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력과 공심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다른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비로소 소통을 할 수 있고, 소통이 되어야 화합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5.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33대 집행부가 이룬 성과는 종도와 사부대중의 노력이 밑받침되어서 이룰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하는 일은 승려복지의 시행이다.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종단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현재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그리고 통합종단 설립 이래 최대의 불사가 될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시작이나 300년 만의 개혁이라는 승가교육제도의 혁신, 강북 흥천사 중창불사, 논산 호국연무사 설립, 자비와 나눔의 확산, 한국불교의 세계화 등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가장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범종단적으로 추진해 온 5대 결사를 이은 자성과 쇄신결사가 확고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쇄신입법의 제정이나 청규의 제정 등이 곧 결실을 볼 예정이기에 다음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 34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으면서 8대 운영기조와 13대 분야별 종책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구중심제의 추진이다.

우리 사회는 지방분권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종단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교구 분담금에 의지해 운영하고 있는 현 체제는 장기적으로 많은 한계를 노출하게 될 것이다. 교구중심제는 단순히 중앙과 말사를 연결하는 행정조직에 그치는 교구가 아니라, 교구가 해당 지역의 포교, 전법, 수행, 복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종법 체계를 손질하여 교구법을 제정하고 또한 교구 사무 전담 행정기구의 지위와 편제를 새롭게 규정하여 교구 행정과 본사의 사찰 행정을 분리할 것이다. 이외에도 건강한 재정 확충과 비구니 스님 권익향상을 위한 비구니부 신설, 비구니특별교구 설립 등을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겠다.

> “
> 지난해 승풍실추 사건 접하며
> 종단 책임자로서 깊이 참회
>
> 가장 중요한 덕목 ‘공심과 원력’
> 원력, 비전 목표 가다듬게 하고
> 공심은 일처리를 바르게 해
>
> 33대 집행부, 보람 아쉬움 교차
> 총본산성역화 승가교육혁신 성과
> 자성과 쇄신결사는 지속될 과제
>
> 차기 집행부선 교구중심제 중점
> 재정 확충, 비구니 권익향상도
>
> 현행선거법 폐단 여전히 심각
> 종교지도자는 추대방식 바람직
> 선거 피할 수 없다면 직선제로
> 종책과 리더십으로 평가받아야
> ”

7. 우리 종단의 선거법은 지난 1994년 개혁의 산물이다. 모든 종도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에 무분별한 비방과 폭로, 금권선거, 편 가르기에 의한 승가의 분열 등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폐단이 나타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지도자를 선출하는 최상의 방식은 합의추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합의추대가 안될 경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종도들의 뜻을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불가피하다면 좀 더 많은 종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8. 다른 후보 스님들은 일선에서 종단 발전을 위해 애쓴 분들이다. 특히 보선스님께서는 교구본사 주지와 종회의장이라는 종단의 중책을 두루 거치신 분이다. 수행의 깊이나 인품,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분이기도 하다. 여러 스님들이 갖고 계신 경륜과 덕망을 잘 배우겠다.

9. 경구 가운데 ‘백천입해 동일함미(百川入海 同一鹹味)’라는 말이 있다. 대일경소(大日經疏)에 나오는 말로 일백 개의 강물도 바다로 들어가면 짠맛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이 구절은 승가의 화합은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불교 경전의 말씀은 아니지만 총무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회남자(淮南子) 범론훈(氾論訓)에 나오는 일궤십기(一饋十起)라는 구절이다. 중국의 우(禹)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진 이를 맞이하기 위해 한 끼 식사 중에도 열 번이나 일어날 정도로 백성을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 마음으로 종무행정에 혼신을 다하고 종도를 받들겠다는 생각을 되새기고 있다.

10. 지난 4년 동안 전국은 물론 세계 각지를 돌며 한국불교의 가능성과 미래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 가능성과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단결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불자 여러분들에게는 적극적 실천행과 보살행이라는 새로운 신행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한 크고 작은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보살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한국불교의 미래 희망을 밝혀가는 길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바란다.

공 고

제43차 원로회의

제43차 원로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2557(2013)년 **10월 1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 안 건 : • 제34대 총무원장 인준의 건
• 기타사항
■ 문 의 : 원로회의 사무처(02-2011-1865)

불기2557(2013)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 운

ARS 법보시 후원 동참안내

ARS **060-700-0048**

가까운 이웃과 주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아름다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ARS 후원전화 060-700-0048(한통당 5,000원)

포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가까운 이웃과 주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비록 한 장의 신문이지만 포교사 한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환경이 열악한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한 선업을 쌓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문의 02-730-4488 불교신문 독자기획사업부